

소모일기召募日記

본 자료는 경상도 상주에서 소모사召募使로 활동했던 정의묵鄭宜默이 1894년 10월 17일부터 1895년 1월 27일까지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당시 정부는 9월 22일 임시 최고군사 지휘부인 도순무영都巡撫營을 설치하여 도순무사都巡撫使에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 중군中軍에는 허진許璉을 임명하였다. 9월 29일에는 다시 삼남 요지에 소모사를 임명하였는데, 소모사는 모두 현직 지방관이었으나 상주 소모사만이 유일하게 전직 관리인 전승지前承旨 정의묵이 임명되었다. 이는 거족대가巨族大家에서 소모사를 선임하여 보수세력의 결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상주의 집강소를 소모영에 소속시켜 지휘했던 사실, 영동 용산전투와 보은 북실 전투시 소모영에서 군기와 군량을 지원하고 상주의 요충지인 화서化西, 모서牟西 지역에 군사를 보내 농민군을 방어한 사실, 보은과 진주晉州, 하동河東 등지에서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활동,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광양光陽에 집결하여 하동으로 진출한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본 자료는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모영의 설치과정, 민보군의 조직, 낙동일본군병참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원본은 상주군 외서면外西面 우산리愚山里의 진양晉陽 정씨鄭氏 상우산上愚山 종가宗家에서 보관하고 있다.

소모일기 召募日記

동학東學이라는 명칭은 경주慶州 최제우崔濟愚가 주창하였다. 그뒤 금상金上, 고종高宗 丙寅, 1866년에 정도正道를 떠받치고 사설邪說을 배척하면서 대대적으로 죄인들을 처형하여 동학이란 두 글자는 마침내 나라에서 금지하였다. 그런데 무자戊子, 1888년부터 경인庚寅, 1890년 사이에 사설이 다시 성행하여 최제우의 무리인 최시형崔時亨은 팔도도접주八道都接主라고 칭하였다. 최시형의 무리 중에 전봉준全琫準·임국호林局昊·손응구孫鷹九, 손병희孫秉熙·서병학徐丙學·이국빈李國賓 등 많은 사도邪徒들이 서로 선동하여 보은報恩의 장내帳內를 근거지로 삼고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다.

그들의 술법은 부적과 주문으로 신을 내려오게 한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도道는 하늘을 공경하고 덕을 베푼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또 병을 치료하고 난리를 피하게 한다는 등의 말로 어리석은 민중들을 현혹시켰으며, 결국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는 말로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품은 지는 오래되었고 그 뿌리도 매우 단단하였다.

저들이 기치를 세우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자 말류末流의 폐단이 드러나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으며 신을 욕보이고 사대부를 먼저 죽이는 데 이르렀다.

저들의 장기는 정당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공연히 패역悖逆을 자행하며 무기를 약탈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임금이 임명한 관리들을 해치고 임금의 군대에 항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회유하여 흠어들게 하여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여 복종하게 하여도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저들의 만행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동학의 난은 호서와 호남에서 시작하여 기전畿甸, 경기도과 교남嶠南, 경상도에 까지 미쳤으며, 이들 지역이 모두 사도들의 소굴이 되어 난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성상聖上께서 혁연赫然히 진노하시어 장신將臣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하여 한성부漢城府에 순무영巡撫營을 설치하도록 하시고, 초토사招討使·소모사召募使·소모관召募官 등의 여러 신하를 임명하여 나라 안에 배치시켜 병사를 징발하여 토벌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에 갑오甲午, 1894년 8월에 마침 소모사로 차하差下한다는 명령이 내려서 나는 10월 17일에 비로소 본군本郡, 상주에 도착하여 명령을 받았다.

1894년 10월 17일 [甲午十月十七日]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동곽東郭의 재종제再從弟인 교리校理 정하묵鄭夏默이 와서 소모사로 차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날 저녁에 본부本府의 통인通引¹ 김봉운金鳳雲이 인신印信을 가지고 왔다. 이 인신은 1866년에 소모召募하였을 때 돌아가신 판사공判事公 할아버지께서 차셨던 인신으로 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이어서 육방六房의 여러 아전들이 도순무사의 감결甘結을 가지고 왔다.

감결의 내용에, “지금 의정부의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정

註

1 통인(通引): 지방관아에 딸려 잔심부름하는 아전의 일종을 말한다.

부에서 임금께 지금 순무영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양호兩湖의 비류匪類들을 토벌하고 있으니 원근의 선비와 백성들 중에 반드시 소문을 듣고 의병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주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여산부사礪山府使 유제관柳濟寬을 호남소모사湖南召募使로 차하하고, 홍주목사洪州牧使 조재관趙載觀·진잠현감鎭岑縣監 이세경李世卿을 호서소모사湖西召募使로 차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병을 모집하여 속히 소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영남은 창원부사昌原府使 이종서李鍾緒와 전 승지前承旨 정의목을 역시 소모사로 차하하여 함께 비도들을 방어하도록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금께서 ‘윤택한다’라고 전교하셨고 이를 받들어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원부사에게는 관문으로 신칙하고, 전 승지 정의목은 집이 상주尙州에 있으니 속히 그에게 지시하여, 아들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도와서 비류들을 소탕하고 사후에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하라, 소모사인 전 승지 정의목의 집은 본읍本邑에 있으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본가에 알려져서 그로 하여금 즉시 소모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라. 창원부사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부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상의하여 조처하라는 내용도 지시하라. 그리고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지시한 상황을 즉시 도순무사에게 보고하라” 고 하였다.

나와 같이 재주없는 사람이 외람되어 중임을 맡아 두렵기 그지없었다. 이날 밤 첫닭이 울 때 옥성玉成의 종제가 도착하였다.

18일 [十八日]

맑음. 산야山野의 여러 종친들이 차례로 와서 모였다. 모두들 겹을 먹은 나머지 서로 미주보고 근심하였으며 이야기가 나랏일에 미치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서사리書寫吏 이병하李秉夏가 선

무사宣撫使 이중하李重夏의 관문을 가지고 와서 배알하였다. 그것은 바로 10월 14일에 대구大邱에서 보낸 관문이며 비류들을 토벌하는 일과 관계된 것으로 원문은 『소모사실召募事實』에 들어있다.

19일 [十九日]

맑음. 나를 전송하러 모인 여러 가까운 친척들과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주민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오후에 본주本州, 상주의 포졸砲卒과 각수角手 및 역마驛馬 인부가 명령에 따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종제 정홍묵鄭弘默, 조카 정재덕鄭在德, 재종숙再從叔 정동철鄭東徹 등과 함께 출발하였다. 나는 용복戎服을 입고 말고삐를 잡고 길을 떠났다. 아랫마을에서 잠시 쉬었다가 초산草山에 잠깐 들른 뒤에 연빈관延賓館에 도착하니 관리들이 관례에 따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서 촛불을 들고 남문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모자와 의복을 바뀐 뒤에 공손히 전패殿牌를 배알하고 동각東閣에서 잤다. 종제 정시묵이 들어왔다.

본부本府에 도착한 뒤에 먼저 집강소執綱所의 두령頭領인 박명현朴明顯, 강진규姜進圭, 차재혁車載赫 등을 불러서, 그들이 앞장서서 의로운 마음을 보인데 대하여 격려하였으며, 그들이 저질렀던 범법행위에 대하여 나무랐다. 대체로 집강소라는 것은 여러 교리校吏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비류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고 용사들을 모집한 것으로 그 무리가 이미 500여 명이나 되었다. ○ 향교에서 통문을 발송하여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도단道壇²에서 통문을 발송하여 선비들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것

註

2 도단(道壇): 도남서원을 가리키는데, 현재 상주시 도남동에 있다. 여기 유림들이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의병동원과 양곡수집의 통문을 최초로 돌렸다.

들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 비도匪徒들을 토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 진장鎭將 유인형柳寅衡이 성주城主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공적인 예로 접대하기가 어려워 다만 편복便服을 입고 만나보았다. 그는 힘을 합하여 비류들을 토벌할 계책을 대략적으로 개진하였다.

도단의 통문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양호의 비류들이 근래에 더욱 늘어나서 성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약탈하여 난리의 형세가 이미 드러났다고 합니다. 전에 정부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순무영으로 하여금 병사들을 징발하여 비류들을 토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병들을 불러 모아 속히 적을 소탕하라는 뜻으로 삼도에 각각 소모사를 파견하였는데, 영우嶺右, 경상우도의 상류上流는 우산愚山 정영감鄭令監, 정의목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이미 업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안위가 달린 시기에 목숨이 붙어 있는 자들이라면 이를 소홀히 보아 넘기면서 적들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고난 천성을 지키면서 교화가 행해지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적개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선 통문을 발송하고 두루 알립니다. 바라건대 모든 군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달 23일에 주주의 북쪽 향사당鄉射堂에 모두 모여 기무機務를 의논하고 좋은 방법으로 일을 돈독히 하여 호흡을 맞추도록 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20일 [二十日]

맑음. 생각해보니 동헌東軒은 원래 정당政堂이어서 오래 거처하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래서 벽유당碧油堂으로 내려와서 거처하고 그곳에 소모영을 설치하였다. ○ 진장鎭將이 와서 알현하고 군대와 고을에 관한 일을 대략 이야기하였다. ○ 산외山外의 여러 가까운 친척들과 고을 가까이에 사는 여러 사우士友

들이 차례로 방문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일에 관하여 대략 이야기하였다. ○ 방유문(榜諭文) 한 통을 작성한 뒤 형리청(刑吏廳)에 보내어 정서(正書)하도록 하였다.

21일 [二十一日]

맑음. 종제 정좌묵(鄭佐默)을 밀양(密陽) 관아로 보내어 선무사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다. ○ 모래 장대(將臺)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집강소에 명령을 내려 신척하였다. ○ 비도들이 흩어져서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다고도 하고, 황간(黃澗)과 영동(永同)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도 하며, 혹은 기포(起包)하여 조세곡식을 거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금의 위엄이 미치는 곳에서는 당연히 임금의 덕에 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멋대로 쾌악한 습성을 부리고 있으니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다 주벌(誅罰)할 수 있겠는가? ○ 이날 성문 4곳에 방을 게시하여, 비류들의 잔당이 명첩(名帖)을 가지고 와서 귀화하도록 하였다. 또 거괴(巨魁)를 잡아서 바치면 죄를 면해주고 상을 준다는 내용으로 경내에 효유하였다. ○ 형리청에서 방유문과 절목(節目) 한 통을 모두 정서하였다. 여기에 관인을 찍어 본군의 각 면에 보내고 또 각 읍에도 나누어 보냈다.

방유문의 내용에, “경상도소모사가 각 읍의 유생과 서리 및 백성들에게 방을 게시하여 효유한다. 위대하신 우리 열성조께서 대를 이어가며 인자함과 은택을 두터이 하시어 선비들의 추구하는 바가 반듯해지고 백성들의 풍속이 순수해졌다. 그래서 천한 종이나 어리석은 부부라도 정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받들며, 뒷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한 법도가 지금까지 500여 년을 이어오면서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였고 나라는 그 덕택을 오래도록 보았다. 그리고 특히 대령(大嶺), 조령(昭陵) 이남은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이름이 났으며 도내(道內)에서 골고루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었으니 거기에는 진실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운이 험난하고 사실이 횡행하여 일종의 요괴 무리들이 동학이라고 일컬으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유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그 법을 전파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무리들이 불어나서 세력이 커지자 도처에서 추종자를 불러 모아 1,000명 혹은 10,000명씩 무리를 이루어 우리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무기와 군량을 빼앗아갔으며, 우리의 사족土族을 때리고 우리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그밖에 분수와 법률을 어기며 윤상倫常을 어지럽히는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팔도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 거의 조용한 지역이 없었는데 호남과 호서가 가장 심하였다. 관부가 정사를 집행할 수가 없고 조정이 명령을 시행할 수가 없으며, 백성들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국가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참으로 유사 이래 처음 발생한 대변란大變亂이다.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편안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윤음을 반포하여 특별히 효유하시었으나 저들은 완악하게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위무威武를 드러내었으나 저들은 완고하게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저들이 포효하면서 날뛰는 것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얼마 전에 정부政府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순무영에 신칙하여 병사들을 징발하여 비류들을 토벌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의병들을 불러 모아 속히 적을 소탕하라는 뜻으로 삼도三道에 각각 소모사를 파견하였다.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경상우도라는 중요한 지역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임금이 근심하는 것은 신하에게 치욕이 되니 어찌 분골쇄신하는 것을 꺼리겠는가? 다만 이번 변란이 불행히도 선산先山이 있는 고향 가까이에서 발생하였다. 대의大義는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이니 개인적인 사정만 고려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출행하여 장차 병사를 소집하고 군량미를 모아서 저들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추종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삼대三代 성왕聖王의 군율임이 떠올랐다. 더구나 우리 성상과 대원위大院位 합하閣下께서는 천지와 같이 넓고 인자한 마음으로 우로雨露와 같은 은택을 내리시어 저들을 위로하고 정착시키면서 언성을 높이고 얼굴빛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교만한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르러 마침내 사사로운 정을 끊는 조치를 내리셨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이러한 성덕聖德을 받들어 대양對揚하지 않고 곧장 무력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업무를 맡은 날에 우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어 효유하고 아래에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목별로 기록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백성들은 이를 잘 살피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경내의 비류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확실히 잘못을 깨닫고 단호히 귀화하여 살아서는 선량한 백성이 되고 죽어서는 정의로운 귀신이 되도록 한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약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겉으로는 귀화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들은 난민亂民임을 자처하고 국가에 대항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충신忠信을 갑옷으로 삼고 예의禮義를 방패로 삼으며 민심民心을 성곽으로 삼아 끝까지 소탕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니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으니 계속되는 효유를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 一. 소모사의 임무는 오로지 의병을 모집하여 비류들을 소탕하는 데 있으니 경내의 크고 작은 백성들 중에 비류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모두 양민으로 의병이 되어야 한다. 5가家を 1통統으로 만들고 5인을 1오伍로 편제하여, 그 가운데 용맹하고 위풍있는 자를 골라서 정의군正義軍으로 차출하며 정의영관正義領官과 정의무사正義武士로 차출하여 인첩印帖을 성급成給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 一 . 양민들이 비류에 가담한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화가 두려워서 들어간 자도 있고, 남의 꾀에 빠져서 들어간 자도 있으며, 남의 위협 때문에 들어간 자도 있다. 이들 모두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을 알게 된다면 혹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각자 비류에 들어가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명첩名帖과 염주念珠 등의 물건을 가지고 본 군문軍門으로 와서 정의로운 대오隊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지난 일을 허물하지 않을 것이다.
- 一 . 비류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접주接主들이 난을 피할 수 있다거나, 군역을 면제해 준다거나, 병을 치료해 준다거나, 내세에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술책이고 사람을 죽이는 계책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혹되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깨달았다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미 자신들이 처신해야 할 바를 알아서 용감하게 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 여전히 미련이 남아 배회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진짜 비류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아 그 머리를 효수하고 그의 집을 불태우고 그의 전택田宅과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이웃과 친척들을 연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一 . 귀화한 비류들은 자신들이 접주에게 속았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접주의 은닉처를 밀고하거나 혹은 직접 그들을 잡아서 바친다면, 이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보상하는 행동이므로 더욱 가상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상을 내릴 것이다.
- 一 . 거괴를 잡아서 바치는 자에게는 그에 따라 후한 상을 내리라고 조정에서 여러 차례 명령을 내렸다.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 분명히 힘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해악을 제거하는 자는 당연히 임금에게 아
뢰어 상을 내릴 것임을 약속한다.

- 一 . 어리석은 백성들로서 비류에 들어간 자들도 이미 통탄할 노릇인데 사
족이나 관속官屬들이 종종 잘못된 것에 물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리니
매우 놀란다. 아, 문학文學과 예법禮法을 강구하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차마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차마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만약 법으로써 처벌을 한다면 어리석
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혹 어리
석은 백성들보다 빨리 잘못을 뉘우칠 수 있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빨
리 마음을 고치도록 하라. 그러면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지난
잘못을 허물하지 않고 본 군문에서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길 것이다.
- 一 . 비류들이 귀화하기 전에는 저들을 소탕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귀화
한 뒤에는 방어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이는 조정에서 지시한 사항
이다. 경내의 크고 작은 백성들은 힘과 마음을 합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한결같이 본 군문의 절제節制에 따라 소홀함이나
차질이 없도록 하라.
- 一 . 예전에 본읍에서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 10에
7~8이었다. 그런데 전해들은 바로는 창검과 총 등이 더러 그 당시 면
面을 떠났던 비류들의 집에 있으나 그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감히 반
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치상 그럴 법도 하다. 진심으로 귀화
하려고 한다면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니 절대로 처
벌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一 . 본 군문이나 본 진영鎭營 혹은 본부本府의 관속을 막론하고 혹 외촌으

로 나가서 귀화한 백성을 두렵게 하여 동요시키고 토색질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는 죄가 비류들의 악행보다 더 크다. 본면(本面)과 본동(本洞)에서 즉시 붙잡아서 압송하여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22일 [二十二日]

맑음. 이때에 소식이 와전되어 일일이 믿을 수 없었다. 황간과 영동지역에서 비도들 중에 진을 치고 있는 자가 몇 만명인지 알 수 없는데도 본부의 아전과 향리가 서로 와전시켜 군정(軍政)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대의(大義)가 있는 곳이라면 비록 강한 적이 앞에 있다하더라도 나아감만 있고 물리남은 없어야 함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라”고 하였다.

저녁에 친구 이경능(李景能)의 말을 들으니, “경군의 영관은 바로 전에 평온(坪溫)에 있던 사과(司果) 이규태(李圭泰)³인데 막 장내(帳內)에 도착하여 적의 소굴만 불태우고 청주(淸州)로 돌아가서 주둔하고 있으며, 조정에서는 다시 감역(監役) 맹영재(孟英在)⁴를 차출하였는데 그가 소모관의 직임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동의 비도들은 천여 명에 불과한데다 혼란스럽고 전혀 질서가 없으며 양식이 떨어지고 갈 길이 막혀서 원망하며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함부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와 같았다.

註

3 이규태(李圭泰): 순무영 선봉장으로 임명되어 공주전투에 투입되었다. 보은장내의 토벌은 장위영 영관 이두환(李斗璜)이 담당했으므로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2월 26일자로 이규태는 좌선봉장, 이두환은 우선봉장으로 임명되었다.

4 맹영재(孟英在): 경기북부 소모관으로 임명되어 강원도 홍천으로 진출했으므로 남하한다는 기록은 오류이다.

○ 전에 집강소에서 체포한 비도 9 명을 장날에 태평루太平樓에 형장을 설치하여 엄하게 형을 가하여 위엄을 보이고, 다시 진심으로 귀화하라는 뜻을 원근에 효유하였다. ○ 순영巡營, 경상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병인丙寅, 1866년에 만들어진 목인木印을 사용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물었다. 그리고 일에 숙달된 영리營吏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 다시 여러 고을에 신칙하여 귀화한 자와 귀화하지 않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드는 일에 숙달된 아전 1명을 시켜 보내달라고 하였다. ○ 산야의 여러 가까운 친척과 친구 이세숙李世叔 · 유병문柳秉文이 찾아왔다. ○ 친동생 정용묵鄭容默이 왔다.

23일 [二十三日]

보슬비가 내린 후 맑아짐. 집강소의 병사 800여 명을 데리고 북장대北將臺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죄인 5명의 죄를 다스렸다. 금金 100여 꾸러미를 출연하여 병사들을 먹이고 돌아왔다. ○ 향내鄉內의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방문하여 소모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운 형국에 또 난리까지 겪게 되니 도무지 좋은 계책이 나오지 않아 매우 답답하였다. ○ 하상河上의 생질 유문식柳汶植이 고향으로부터 왔다. 그를 통하여 친척들의 안부를 대략 들었다.

24일 [二十四日]

맑음. 향인鄉人의 인사들이 향사당에서 사무를 보았다. 그래서 소교小橋를 타고 가서 향유鄉儒들을 만나,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사대부들은 의로운 마음을 내어 힘을 바쳐 요사한 기운을 쓸어버립시다”라고 간절히 설득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우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의논을 모아 우선 공사원公事員을 선출하였다. 그래서 의병대장義兵大將에 전 현감 유도석柳道奭과 유학 성유원成有源 및 조범구趙範九 등의 3명이 추천되었는데 수망수望

의 권점圈點이 가장 많아서 결국 유자인柳慈仁 어른을 의병대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진사進士 이영보李穎溥와 황의건黃義建을 부장副將으로 선출하고, 전승지前承旨 조남식趙南軾과 전 응교前應敎 김근연金近淵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선출하여 각각 추천서薦紙를 써주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 저녁에 재종제인 진사 정후묵鄭厚默이 들어와서 만났다.

25일 [二十五日]

보슬비가 내린 후 다시 맑아짐. 향유들이 다시 모임을 가지고 각 문門과 각 속塾에 전곡錢穀을 나누어 정하여 소모의 업무에 응하였다. ○ 새 성주城主는 곧 예안禮安의 사돈 이만윤李晩胤으로 이날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관아에 도착하였다. ○ 각처의 탐리探吏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는 황간과 영동의 여러 적들이 23일부터 옥천沃川을 넘어 공주公州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보고는 지례知禮로 들어갔다가 진주晉州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의 첩보牒報는 하나도 그 상세함을 얻을 수 없었다. 태평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군사제도가 탄식이 나올 만큼 문란해져 있었다. ○ 이날 밤에 동헌에 들어가서 군무에 관하여 대략 이야기를 나누고 본영本營으로 돌아오니 닭이 이미 울고 있었다. 안석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으나 피곤이 가지지 않았다.

26일 [二十六日]

맑음. 동생을 고향으로 보냈다. 또 재종숙을 율원栗院으로 보냈다. ○ 순영에서 회이回移가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목인木印은 정부에 보고하였으며 영리는 안동安東 아전 권윤장權潤璋을 보냈다”고 하였다. ○ 이날 밤에 주서注書 이중태李中泰가 찾아왔다.

27일 [二十七日]

맑음. 각 면의 전령傳令과 각 면의 약정約正의 추천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이 또한 군무여서 하루 종일 분주하였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여 여러 공문서가 계속 이어지니 답답하고 한탄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었겠는가? ○ 신시申時에 둘째아이 재철在喆이가 와서 동생의 편지를 보여주니 기쁨이 트이고 위안이 되었다. 이날 밤에 새 수령이 찾아와서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줄곧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28일 [二十八日]

맑음. 상사上舍 종제를 대안大安의 본가로 돌려보내어 밀양密陽 관아에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다. ○ 교리校理 김손간金巽簡이 와서 말하기를, “저번에 향원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서성西城으로 갈 작정이므로 조방장의 직임을 체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향론鄉論으로 추천하여 선발한데다가 또 나랏일이 시급함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웠다. ○ 선교仙橋의 이상사李上舍 어른이 노병으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추천서를 돌려보내 왔으며, 도곡道谷의 조승선趙承宣은 비도들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야한다고 핑계를 대었고, 유자인 어른은 성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소모에 관한 일이 아득히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백의白衣로 의병을 일으키는 일은 옛날부터 어려웠지만 이러한 때의 이러한 거사는 더욱 답답하였다. 이 때문에 지역의 인사들도 모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

29일 [二十九日]

맑음. 날마다 영문으로 달려와서 호소하는 자들은 모두 귀화하여 의리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구습을 버리고 새

로운 것을 따라서 국가가 다시 안정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 우산愚山의 계소 稊所에서 우선 의소義所로 전錢 130금을 분배하여 유사有司에게 보냈다. ○ 죄인 김정준金景俊을 잡아와서 엄하게 곤장을 친 뒤에 칼을 씌워 가두었다.

11월 초 1일 [十一月初一日]

새벽에 전패를 배알하고 돌아왔다. ○ 선산善山·함창咸昌·용궁龍宮의 노련한 아전들이 보장報狀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였다. 이들에게 회제回題를 내려, “저들의 괴수와 접주接主 및 접사接司들을 추적하고 체포하여 엄히 구금한 뒤에 보고하고, 그 밖의 여러 놈들은 귀화하도록 효유하라”고 하였다.

초 2일 [初二日]

맑음. 바람이 세게 불고 매우 추웠다. ○ 진사 강춘희姜春熙가 찾아왔다. 그를 통하여 서울 소식과 호서의 상황에 대하여 대략 듣고 객중의 쓸쓸하고 적막한 회포를 조금 풀었다. ○ 바로 정부와 순무영에 보첩報牒을 작성하여 보냈다. 대개 소모사의 명을 받은 이후에 병정의 소집과 군량의 모집에 관한 일과 새로이 병란을 만난데다 또 흉년이 닥쳐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상세한 것은 『소모사실』에 들어있다. ○ 향원들이 이따금 찾아왔으나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없이 머리를 숙이고 관망만 하며 나서서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선비들의 기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심과 탄식이 그치지 않았다. ○ 관문에서는 이미 영리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까마득히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창원부사도 언제 부임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들리는 소문에는 금산錦山과 공주 등지가 모두 비류들에게 함락되었으며 경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들을 토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청의 문서를 보

지 못하여 매우 의아하고 답답하여 다시 탐리들을 내보냈다.

초 3일 [初三日]

맑음. 오늘은 노친의 생신이었으나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겨를이 없었으니 개인적으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동학의 난이 사방에서 일어나 무리들을 거느리고 성을 차지하며 그 위세가 매우 장대하였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는 크게 놀라 군대를 파견하고 또 일본군대를 빌려서 사방으로 출정하게 하니 그 모습이 늑름하였다. 일본군 80명이 서울에서 호서를 지나 진주로 향하였다. 이들은 지나면서 본군의 성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기치와 무장은 햇빛에 번쩍이고 그 위풍은 서릿발 같아서 매우 두려웠다.

초 4일 [初四日]

맑음. 상사 강춘회를 보냈다. ○ 향원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일을 개을리하며 나서려 하지 않았으며, 조방장은 사임하는 글을 올렸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향교에 엄히 체문帖文을 내렸다. 이 글은 『소모사실』에 들어있다. ○ 막 일본군대를 보냈다. 또 들으니 소모군관召募軍官 1명이 역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와서 튼튼한 청충마靑?馬로 갈아타고 금릉金陵 김천으로 달려갔다고 하였다. 전쟁 때문에 어수선하여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 귀화한다는 소장訴狀이 날마다 관청에 접수되어 가득 찼다. 그런데 얼핏 들으니, 중화中和 등지에서 동학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몰래 호서의 적들과 호응하려 한다고 하였다. 왕명이 지엄하고 각처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옛 습성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어 정도正道로 돌아올 줄을 모르니 슬프고 또한 애통하다. ○ 순영에서 내린 문첩文牒을 보니, “진주·곤

양^{昆陽}·사천^{泗川}·단성^{丹城}·남해^{南海} 등지에서 동학의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서 혹은 무기를 탈취하고 혹은 관장^{官長}을 몰아내었다. 관군이 이들과 여러 차례 접전을 하여 거괴를 죽이고 무리들을 많이 잡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는 곳 마다 죽이고 부상을 입힌 자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였다. 또 들으니, 금산과 공주에서 바닷가에 이르는 지역에 저들 무리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임금의 군대가 이르는 곳마다 위엄과 은혜를 함께 베풀면서 지금 한창 토벌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 우천^{愚川}의 치결^{蹠潔} 형남도 의병의 일로 내방하였다.

초 5일 [初五日]

맑음. 향청의 인사들이 다시 조금씩 찾아왔으며 여러 가까운 친척들도 종종 방문하였다. 그러나 소모에 관한 계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단지 번거롭게 오고가기만 하였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초 6일 [初六日]

맑음. 대구의 아전이 와서 만나보았다. 그를 통하여 우하도^{右下道}, 경상우도의 남쪽지역의 여러 고을들은 이미 모두 난리가 잦아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 마음을 놓을 수는 있었으나 병사들 사이에 잘못된 소문이 퍼져 그로 인해 술렁거리니 안타까웠다.

초 7일 [初七日]

맑음. 임곡^{壬谷}의 동학의 괴수 강선보^{姜善甫}와 가리^{佳里}의 강홍이^{姜弘伊} 그리고 영수^{靈水}의 김경준은 거접^{巨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강선보는 태평루 앞에서 효수하였고, 강홍이와 김경준의 2남은 남사정^{南射亭} 아래

에서 총살시켰다. 이 일이 있는 뒤로 저들은 두려워하였으며 나머지 백성들은 통쾌하게 여겼다. ○ 상사 강준희의 편지를 연이어 받고, 청산靑山·황간·영동·보은 등지에서 경군과 일본군들이 소탕작전을 벌인 덕분에 저들 무리들 중에 죽은 자가 600~700명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져 달아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매우 통쾌하고 다행스러웠다. 다만 괴수인 최적崔賊, 최시형은 마치 굴을 3개 파놓은 토끼처럼 끝내 포위망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려 잡을 수가 없었으니 매우 안타까웠다.

초 8일 [初八日]

맑음. 각 면의 별군관別軍官과 부관副官 및 약정約正들은 모두 의병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니 이들을 응대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다. ○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에 밀양 관아의 서찰을 받고서 창원부사가 그 간에 이미 부임하였으며 군대가 흉괴凶魁를 죽였음을 알았다. 그래서 유격장遊擊將을 차출하여 정예 포수砲手 20명과 참모 5명을 데리고 밤중에 중화 등지로 출발하도록 하였다.

13일 [十三日]

비가 내림. 달성으로 가서 영백嶺伯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차가운 비가 세차게 내려서 하는 수 없이 명령을 거두고 마부馬徒를 시켜 선산부善山府에 사적으로 연락하였다. ○ 진주병영晉州兵營의 군관이 찾아와서, 진주·하동河東·단성·곤양이 일본군들의 소탕작전 덕택에 잠시 숨을 돌리게 되었으며 전주全州 이남은 지금 계엄 중이라고 하였다. ○ 동각東閣으로부터 순영의 기별을 받아보니 호남의 남원南原·서산瑞山·태인泰仁 3개 고을의 수령들이 비류들에게 살해되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웠다. ○ 저녁에 수령을 만나서 군대를 징발하고 군량을 모으는 일을 전담시켰다.

14일 [十四日]

구름이 끼고 흐림. 이따금 보슬비가 내렸다.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조카 정재덕, 재종숙 정동철 및 참모 이병희(李秉禧)와 함께 달성으로 출발하였다. 지나면서 도곡에서 조영감(趙令監)을 방문하고 오리원(五里院)에서 잠시 쉬었다. 선산부 경계에 이르자 부사(府使)가 촌정(村丁)을 시켜 교자(轎子)를 매고 대현(大峴)을 넘도록 지휘하였다. 부(府)에서 10리가 못 미치는 곳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연도에 등불을 밝히고 어느 정도 위(威)를 갖추었다. 바로 동헌으로 들어가서 좌정한 뒤에 본부(本府)의 성주 윤우식(尹雨植)을 개인자격으로 접견하고 본 읍의 전후 사정을 물었다. 그는 이미 동학의 괴수 3놈을 효수하여 경계하였고 잡혀있는 신두문(申斗文)의 사람됨은 말할 것도 없이 심장을 찢어 죽일만하고 하다고 하였다. 또 개령(開寧) 수령이 평민 등을 괴롭힌 사실도 들었다. 그의 용모는 온화하고 의젓하여 절도가 있었고 어른에게서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이에 행동이 예에 알맞았다. 마치 묘령의 젊은이와 같아 아꼴만하고 또한 공경할만하였다. ○ 밤에 글을 작성하여 역사(驛使)를 밀양으로 보냈다.

15일 [十五日]

맑음. 하루 종일 온화하여 따뜻한 봄날 같았다. 새벽에 수령과 함께 전패(殿牌)를 배알하였다. 식사 후에 찰미루(察微樓)에 군문을 크게 설치하고 수령과 함께 올라갔다. 죄인 신두문을 잡아들여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을 해치며 무리를 모아 성을 함락시키려는 죄로서 남문 밖에서 총살하였다. 그리고 순영에 보고하였다. 〈결락〉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대개 참_站을 개설하는 장소에서는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저장한다. 그리고 50리에 참 하나를 개설한다. 동래_{東萊}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의주_{義州}까지 1,000리가 넘는 거리가 병영_{兵營}으로 이어져 있다. 저녁에 칠곡_{柒谷}에 도착하여 동헌에서 잤다. 본읍 수령 남궁억_{南宮億}이 와서 인사하였다. ○ 남쪽으로 향하는 며칠 동안 도로는 적막하였으며 읍리_{邑里}는 황량하였다. 지참_{支站}의 공급은 소홀하고 인색하였다.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나 자신이 아주 검소하게 행동하였다. 사행_{使行}이라고 하여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十七日]

맑음. 아침에 칠주_{柒州}, 칠곡_{柒谷}를 떠났다. 금호강_{琴湖江}가에 도착하니 대구부_{大邱府}의 아전이 마중을 나와 인도하였다. 달성산_{達城山}아래에 이르자 참에 머무르거나 행상을 하는 일본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참과 옥_屋을 개설해 놓은 것이 서울의 이현_{泥峴}, 진고개_鎭과 흡사하였다. 시장이 파하지 않아 물화가 나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폭주하였다. 주랑_{疇塲}과 같은 것이 장사에 힘써 종사하려는 뜻인 듯하다. 본부의 향사당에 머물 사관_{舍館}을 정하였다. 순상_{巡相}, 감사과 본판_{本判}, 판관이 명함을 전하며 소식을 물었다. ○ 영금_{靈金}을 밀양 관아로 보내어 승선_{承宣}을 만나서 오도록 이야기하게 하고 사돈 박자교_{朴子喬} 형님을 보았다. 저녁에 들어가서 순상 조병호_{趙秉鎬}를 만나 군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또 고을을 나누어서 관장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18일 [十八日]

맑고 추움. 창원소모사도 감사에게 취임인사를 하기 위하여 왔기에 함께 만나서 소모의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별다른 조정의 신칙도

없었고 다만 순무영의 관방전령(關防傳令) 1통만 얻어서 왔다. 국가가 판탕(板蕩)의 사이⁵와 같이 어지러운 때에 군사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별도로 신척하지도 않고 또 순상도 협력하지 않으며 군량도 없고 병사도 없이 맨손으로 적과 싸워야 하니, 당연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 안의(安義) 수령 조원식(趙元植)이 순영에 올린 첩보를 보니 동도 수만 명이 장수현(長水縣)을 불태우고 영봉(靈峰)을 거쳐 안의와 거창(居昌)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순영에서 영관 최응규(崔應圭)로 하여금 포수 100명을 데리고 안의로 떠나도록 하였다. 시국이 이와 같아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바빠진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관아 주방의 음식이 형편없어서 맛이 나지 않았다. ○ 사돈 박자교가 내방하였다 ○ 징각(澄閣)에 들어가서 순상을 뵈고 말하기를, “한 도 내의 각 군에 소모사와 토포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관할지역을 나누어서 관장한 뒤라야 그들이 힘을 다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주와 선산 및 주천(酒泉), 예천의 아전들이 제멋대로 집강소를 결성하여 동학의 비적들을 토벌한다는 이유로 도리에 맞지 않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순영에서 감결로 신척하여야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 모두 관문으로 신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군량에 관해서는 조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또 방백(方伯)도 조처해주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창원 수령의 숙소로 가서 서로 근심하고 탄식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註

- 5 판탕(板蕩): 판(板)과 탕(蕩)은 모두 시경 대아(大雅)의 편명으로 주의 려왕이 무도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것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돌아왔다. ○ 저녁에 도사^{都事} 이동근^{李東根}과 조관^{哨官} 노애산^{盧愛山}이 내방하여 함께 소모의 일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 탄식이 그치지 않았다.

19일 [十九日]

추위가 갑자기 심해졌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누그러짐. 승선을 계속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되어가지 않았다. 군무가 시급하여 오늘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노애산이 홀로 추위를 무릅쓰고 와서 전별을 해 주었다. 도를 같이하는 두터운 뜻에 참으로 감동하였다.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자교형과 함께 출발하였다. 영리 권윤장^{權潤璋}과 권석봉^{權錫鳳} 및 마도馬徒, 말물이꾼와 서자^{書者}가 배행^{陪行}하였다. 하빈역^{河濱驛}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파회^{坡回}의 자교형님 집에 들어가서 잤다. 돌아가는 길로 인동仁洞과 칠곡을 택하지 않은 것은 쇠잔한 고을이 지참^{支站}하기 어려움을 생각하여 길을 택하라는 감결 때문이었다.

20일 [二十日]

어제보다 갑절이나 더 추움. 아침에 출발하여 석전^{石田}나루터에 도착하니, 가게는 썰렁하였고 인가^{人家}의 밥 짓는 연기는 끊어져 있었다. 부득이하여 행장^{行裝}에서 떡이 든 작은 봉지를 꺼내어 여러 하인들과 함께 물과 먹었다. 저녁에는 울리^{栗里}의 고성령^{固城令} 집에 들어가서 묵었다. 오랜만에 시춘 누이동생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되고 가슴이 트였다.

21일 [二十一日]

식풍이 불고 눈이 내림. 사람과 말이 얼고 굶주렸다. 부상^{扶桑}에 도착하였는데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개령^{開寧}의 이졸^{吏卒}이 현^縣 경계에 나와서

지참을 해주었다. 역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역마를 이용해 개령현으로 들어가 동헌에서 잤다. 수령 민병익(閔丙益)이 개인자격으로 와서 알현하였는데, 예가 지나치게 간소하였다.

22일 [二十二日]

바람이 불고 추움. 길을 떠나 안실령(安實嶺) 아래에 도착하여 갑자기 일본군 100여 명을 만났다. 이들은 말에서 내려 따지고 꾸짖는 것이 매우 심하였고 으박질렸으나 결국은 무사히 소모영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말하고는 떠났다. 안역(安驛)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유격장(遊擊將) 김석중(金奭中)의 첩보를 처음으로 보니, “군대를 통솔하여 중모(中牟) 땅을 출발하여 동도 5명을 시장에서 총살하고 판계(板溪)에 주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산점(陽山店)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10리나 되는 길을 등불도 없이 어렵게 가다가 영리(營吏) 1명이 말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주(本州, 상주)의 사정은 쇠잔한 고을보다 못하였으니 매우 괴이하였다. 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에 비로소 본영(本營)으로 돌아왔다. 또 김유격장의 첩보를 보니, “중모(中牟)에서 화령(化寧)으로 가서 동괴(東魁) 8명을 시장에서 총살하고 사곡(思谷)에 주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순영에 다녀온 열흘 동안에 본부(本府)에서 또 포졸(砲卒)을 동원하여 6명을 잡아가두었다. 소모의 길에 일마다 방해를 받으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23일 [二十三日]

추움. 처음에 올린 첩보 2통에 대하여 정부가 답한 회제를 보니, “비류들이 교화에 저항하여 도처에서 걸핏하면 소란을 피워 공사(公私)가 근심하고 있다. 적도들의 소굴을 박멸하여 백성들을 안정시켜서 조정에서 부탁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순무영에서는 철저히 토벌하여 깨끗하게 쓸어버리라고 하였다. 인신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병인년의 목인木印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맡긴 책무가 매우 무거우니 어떻게 짊을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24일 [二十四日]

맑음. 식사 후에 본목本牧의 진장鎭將과 함께 태평루太平樓에 올라 비적匪賊의 괴수 6명을 총살하였다. 김유격장의 첩보가 또 도착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가 임곡에 도착하여 1명을 총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최귀崔魁, 최시형를 체포하기 위하여 서리와 눈을 맞으며 험한 곳을 지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다하여 의분義憤을 떨치니 매우 가상하다. 편지를 써서 격려하였다. ○ 오늘부터 관아의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가게에서 밥을 사먹었다. 이는 고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의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 각 지역의 사우들이 간간히 들어와 만났고 의병장 어른이 지금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28일에 출좌出座할 것이라고 하였다. 응교應敎 김성원金性元 형님이 잠시 들렀다가 바로 돌아갔다. ○ 동생 정용묵이 들어와서 만났다.

25일 [二十五日]

맑고 따뜻한. 동곽의 응교사촌이 들어왔다. 친구 강심형姜心馨과 성굴成橘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계狀啓를 작성하였다.

26일 [二十六日]

맑음. 오늘은 바로 동지冬至이다. 새벽에 전패를 공경히 배알하였다. 식사

후에 객사客舍로 가서 무기와 탄약들을 살펴보았다. 또 충의단忠義壇의 모임에 갔다. 장계 초안이 완성되었다. 원문은 『소모사실』에 실려 있다. ○ 본목本牧에 도착한 순영의 관문을 보니 집강소를 소모영에 소속시켜 지휘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공문을 보니 과연 여러 고을을 나누어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상주·함창·문경慶·의성義城·용궁·예천醴泉·예안·안동安東·풍기豐基·봉화奉化·순흥順興·영천榮川·청송青松·진보眞寶·영양英陽의 15개 고을은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관할하고, 대구·경산慶山·자인慈仁·현풍玄風·하양河陽·신녕新寧·창녕昌寧·영천永川·청도淸道·영산靈山·초계草溪·경주의 12개 고을은 대구토포사大邱討捕使 지석영이 관할하고, 인동·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軍威, 비안比安·성주星州·고령高靈의 9개 고을은 인동토포사 조응현趙應顯이 관할하고, 거창·안의·함양咸陽·산청山淸·단성·삼가三嘉·합천陝川·지례·진주·하동·의령宜寧·남해의 12개 고을은 거창소모사 정관섭丁觀燮이 관할하고, 창원·칠원柒原·함안咸安·웅천熊川·김해金海·밀양·양산梁山·진해鎭海·고성·사천·거제巨濟·울산蔚山の 12개 고을은 창원소모사 이종서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27일 [二十七日]

맑음. 남사정南射亭에 가서 병정들을 모집하였다. 노둔하고 허약한 자를 가려내고 날쌔고 용감한 자를 뽑으니 모두 120명이었다. 서기書記 강심형姜心馨에게 계본啓本과 첩보를 봉해서 서성으로 가도록 하였다.

28일 [二十八日]

아침에 흐렸다가 낮에는 개입. ○ 유격장의 첩보를 보니, “지난날에 포위망을 빠져 달아난 남진갑南震甲을 다시 청산에서 체포하여 그 자리에서 총살

하였으며, 최적^{崔賊}, 최시형의 소재지를 탐색하고자 청산과 영동 지역에서 머물면서 기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약을 보충해주시고 병정을 추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글을 보내어 추호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엄히 단속하였다. 또 남정^{南亭}에 나가서 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왔다. ○ 김산의 승선 조시영^{曹始永}도 소모사의 자격으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본영^{本營}에 아전을 보내어 사례^{事例}를 베껴서 갔다.

29일 [二十九日]

새벽에 추웠다가 낮에는 따뜻하였음. ○ 막내동생이 도남^{道南}에서 왔다. 지역의 인사^{人士} 100여 원^員이 모였으며, 의병장 어른이 비로소 출좌하였다. 본영^{本營}에서 포수 20명과 영관들을 보내어 그를 객사의 동청^{東廳}으로 모셨다. 저녁에 동헌에 함께 가서 인사를 하였다.

30일 [三十日]

맑음. 또 의병장 어른을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사직단자^{辭職單子}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을 들어서 치결형을 만나 간절한 말로 삼가 멀리 가지 말라고 하였다. ○ 객사에 가서 병정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수령과 함께 향사당의 모임에 출석하였다. 의병장 어른이 고사하여 감히 임명하지 못하였고 즉시 일어나 일좌^{一座}에서 나가서 결국 모임을 파하였다. 결국 수령과 함께 금장^{錦粧}을 살펴보고 돌아와 본영^{本營}으로 이르렀다. 이때 들으니, 향사^{鄕士} 30여 원^員이 의병장 어른이 멍에 메고 가는 것까지 따라가서 진영^{鎭營}에 이른 후에 말을 에워싸고 간곡히 만류하여 다시 사저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 다시 유격장의 첩보를 보니, 또 적괴 4명을 총살하였으며 청산의 거괴를 진중에 잡아두었다고 하였다. ○ 진주의 아전이 첩보를 가지고 와서 알현을 하

였다. 그곳 형편을 들으니 대체로 상주와 비슷하였다.

12월 초 1일 [十二月初一日]

가는 비가 내려서 얼음이 얼었으며,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림. 아침에 의병장 어른과 함께 객사에 출좌^{出座}하여, 별포^{別砲} 200명과 관포^{官砲} 100명, 그리고 영관·초장^{哨將}·집사^{執事}·전병^{典兵}·장재^{掌財}·서기^{書記}·종사리^{從事吏} 21명을 청廳 아래로 불러서 월료미^{月料米}를 나누어 주었는데 쌀은 도합 3,814되·전錢은 1,334냥 그리고 짚신은 300결레였다. 종서관^{從事官} 이하 여러 임원들이 하루 종일 순시를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꽤 일이 잘 되어갈 희망으로 보였다. 소문에 의병장이 대략 파임^{派任}을 하였다고 하며, 또 부장^{副將} 조영감^{趙令監}도 들어와서 의병들을 단속하였다고 하였다. ○ 순영의 회이^{回移} 2통을 보았다. 친구 이근중^{李根中}의 편지도 함께 도착하였다. 김유격장이 있는 곳에 답장을 보냈다. ○ 서기인 유생 이경직^{李景植}이 사퇴하였다.

초 2일 [初二日]

바람이 불고 추움. 죄인 3놈을 잡아 가두었다. 보은^{報恩}에서 본부^{本府}로 보낸 공문에서 말하기를, “유격대가 경내에 들어와서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격대에게 군대를 철수하여 오게 하였으나 만약 최귀^{崔魁}가 떠난 자취를 알아 비록 도의 경계를 넘어 멀리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쫓아가 사로잡도록 하였다. ○ 가서 의병장 어른을 만나 계획을 대략 설명하고 돌아왔다. ○ 친구 이병희^{李秉禧}가 본가^{本家}에서 와서 군무를 맡으려고 하여 그에게 교련^{敎鍊}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비로소 동서남북 방위의 색으로 글씨를 써서 각 방위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옷에 붙이게 하여 전후좌우의 대오를 나누었으며 일어서고 앉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전법을 조금 훈련

시켰다. 그러나 태평한 시기가 오래도록 이어져서 군사제도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또 근래에는 국가에서 신식제도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이는 모두 외국의 제도로 가르치는 것이어서 갑자기 변경하기가 어려웠다. 비록 자아^{子牙}가 법을 집행하고 손자^{孫子}와 오자^{吳子}가 용병을 하더라도 어찌하겠는가?

초 3일 [初三日]

바람이 불고 추움. 의병장 어른과 함께 남사정^{南射亭}에 나가서 대포를 시험하고 상을 주었다. ○ 10월의 공첩^{公牒}을 보니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시전상인들이 모두 정도^{正道}를 떠받치고 동학을 배척하고자 의義를 드러내서 재산을 털어내어 순무영의 군수에 보태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함이 이와 같다. ○ 친구 강성제^{姜聖齊}의 집에서 떡 1상자를 보내와서 군사들과 나누어 먹었다. 부담없이 친구 이 선물을 받아 요기를 할 수 있었으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 대오를 편성할 때 병졸 1명이 잘못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지인영관^{知印領官}들을 보내어 문병을 하고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병졸과 괴로움을 나누는 것은 장수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초 4일 [初四日]

추위가 조금 풀림. 별포^{別砲}의 성명, 나이 및 주거지를 직접 검토하여 1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 오후에 성을 순시하였다. 서문^{西門}에서 남쪽으로 갔으며, 남쪽에서 동문^{東門}을 거쳐 북쪽으로 갔으며,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열

註

6 자아(子牙): 주(周) 여상(呂尙)의 자.姜태공(姜太公)이라고도 하는데, 주 무왕을 도와 폭군 주(紂)를 쳤다.

석閣石에 모여서 무예를 관람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정이 나에게 이 직책을 맡긴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방어할 계책을 세웠다. ○ 탐리가 와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호남의 동학무리가 광양光陽 등지에 많이 모여서 하동의 관군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승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⁷

초 5일 [初五日]

맑고 추움.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세수하고 머리 빗는 일을 그만두었다. ○ 대체로 상주는 나라의 한쪽 구석에 있으며 조령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낙동강의 상류이고 영남의 요충지이며, 경계가 양호兩湖와 접하고 서울로 가는 길과 통한다. 그러므로 조정이 특별히 하나의 소모영을 설치하여 방어하려는 것이다. 가뭇지 않고 중요하나 300년 동안 훈련을 받지 못한 병졸들과 갑작스럽게 모인 오합지졸들이어서 장수는 병사를 알지 못하고 병사는 전투를 알지 못한다. 총을 들고 군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의병을 일으킨 선비들도 한갓 인의仁義만 떠들어 대고 있다.

이들이 갑자기 적을 만나면 전투도 하기 전에 스스로 와해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독서하는 선비들이 지금 조정의 명령 아래에서 의분을 떨치며 충성을 바치는 것이 비록 매우 가상하기는 하지만, 대오를 나누고 병졸들을 통솔하는 것이 숭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절제節制하는 사이에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지나치게 심하며, 직

註

7 영호대접주 김인배(金仁培)는 순천 광양에 농민군을 이끌고 주둔 하면서 하동을 석권하고 진주병영을 점령하였다.

무를 나누어 정할 때에 사람에 따라 애증의 감정이 생기니, 전쟁을 어린아이 놀이로 생각하고 와언(訖言)을 책략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소모사와 의병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말을 만들어서 틈을 벌이려고 한다. 이는 곧 근본을 살피지 않고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의병을 일으킨 것은 소모사가 조정의 명령을 받아 효유한 데서 말미암았으니 의병으로써 창(倡)의(義)를 공격하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크게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돌이켜 반성할 따름이다. ○ 탐리 이건영(李建榮)과 박성은(朴性闇)을 강좌(江左, 경상좌도)의 여러 고을로 보냈다.

초 6일 [初六日]

추위가 더욱 심해짐. 부수(副帥)가 집으로 돌아갔다. ○ 유격장의 첩보를 보니, “청산으로부터 영동으로 가서 동학의 무리 김경연 등 4놈을 총살하니 호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군대의 위력을 크게 떨쳤습니다”라고 하였다.

초 7일 [初七日]

맑음. 의병장 어른이 기치를 세우고 대장 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것 또한 처음부터 잘못된 관례이며 막하(幕下)의 여러 유생들이 의병장을 잘못 인도하였으니 한탄스럽다. 의병소(義兵所)에 가서 보니 많은 선비들이 운집해 있고 병정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그 위엄 있는 모습이 찬란하여 볼만하였다. 그런데 부수와 방장들은 부모를 뵈러 간다고 핑계를 대거나 혹은 서울로 간다는 구실을 대서 맡은 일을 폐하고 있었다. 그 사정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좌초관(左哨官)과 우초관(右哨官)를 데리고 먼저 사정(射亭)에 가서 무예를 시험하였다. 얼마 후에 의병장 어른이 나왔는데 앞에는 병정들이 우위하고 뒤에는 유생들이 호위하며 음악을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서 장수의 막사로 들어

가서 자리를 잡고 장수의 깃발을 쫓았다. 그리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을 하였으며 여러 유생들도 따라서 절을 하였다. 이것이 과연 옛날의 예법에서 나온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적을 토벌하여 임금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병사들과 맹약을 하였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격시합을 한 뒤에 큰 소 1마리와 쌀 50되를 내어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300명의 포졸과 많은 영관들이 모두 몰려와서 하소연하였다. 그 사정을 살펴보니 의병장이 한 달 동안 출좌하다가 하루아침에 독단적으로 통제를 하니 생소하다고 하였다. 소모사가 왕명을 받들어 진무鎭撫를 하고 있는데다 또 순영의 감칙甘飭도 오래되어서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병장 어른의 체면을 보아서 이들을 타이르고 꾸짖어서 돌려보냈다.

초 8일 [初八日]

맑음. 우산愚山의 집으로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말을 내어 와서 출발하려던 때에 영관과 초장들이 300명의 포수를 데리고 와서 앞을 호위하며 소모사인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끓는 물과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나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소모영에 돌아온 뒤에 도와달라고 신척하여 되돌려 보내고 단지 병정 10명, 사령 2명, 통인 2명만 데리고 갔다. 남장사南長寺 앞에 도착하여 회군하는 유격대의 행렬을 만나서 출진한 이후의 전말을 대충 들었다. 그리고 사졸들이 한 달 내내 갑옷을 입고 있어서 매우 피로한 기색을 하고 있음을 보고는 따뜻한 술 2항아리를 사서 장수와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영관에게 고을로 돌아간 뒤에 소를 잡아서 사졸들을 먹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로해 주었다. 저물녘에 우산에 도착하니 노모는

문에 기대어 서 계시고 어린 아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위로가 되고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술 1항아리와 꽃감 1점을 내어서 데리고 온 병졸들을 먹여 추위를 녹이도록 하였다.

초 9일 [初九日]

맑음. 진시에 초장 2명이 뜻밖에 찾아왔다. 이들이 가지고 온 유격장의 편지를 보니, “영동 수령의 급보 내에, 호남의 비도들이 무주茂朱의 설천雪川과 영동의 월전月田에서 의병과 접전을 하였는데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의병들이 크게 패하였으며, 사태가 매우 위급하므로 밤을 새워 달려와서 구원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선 영리한 아전 2명을 급히 보내어 탐문하도록 하고 초장과 병정을 유격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초 10일 [初十日]

맑음. 묘시卯時, 오전 5~7시에 김산소모사金山召募使의 공문이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무주의 비류들이 장차 영남으로 가려고 하니 이들을 방어하는 데에는 귀영貴營, 상주소모영과 폐영弊營, 김산소모영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정예포수 200명을 선발하여 추풍령秋風嶺으로 가서 막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화 등지는 폐영상주소모영의 요충지이어서 우리 군대는 이곳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귀영김산소모영이 추풍령을 방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즉시 답장을 하였다.

○ 유격장에게 특별히 군사들을 교련시키고 가서 힘껏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미시未時에 종사從事인 사돈 박자교 형님이 내방하여 함께 방책을 논의하였다. ○ 고을 수령의 편지와 유격장의 서찰이 급히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호남의 비도⁸들이 혹은 수만 명이라고 하고 혹은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황간과 영동 등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동과 청산의 여러 아전들이 본진本陣에 사통을 보내어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김유격장으로 하여금 포수 150명을 데리고 중모中牟지역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서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또 세작細作을 각처로 나누어서 보냈다.

11일 [十一日]

맑음. 특별히 탐문하여 적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유격대의 주둔지에 내렸다. ○ 선교의 참봉 이경식과 연사連史 숙부가 왔다. ○ 유시西時, 오후 5~7시에 동각東閣의 거처에서 급보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청산·황간·영동 3개 고을의 성이 이미 함락되어 본주本州의 인심이 동요하고 있으니 빨리 와서 진어鎮禦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래서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 급보를 듣고는 편안히 앉아서 먹을 겨를도 없이 급히 먹고는 행장을 꾸려서 조카 재덕在惠과 연사 숙부와 함께 즉시 어려운 행보를 시작하였다. 내현奈峴을 넘으니 하늘에서 눈이 내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밤에 더욱 심해지려 하였고 말도 굶주렸다. 횃불 하나를 밝혀서 앞길을 인도하도록 하여 말을 달려 숲을 통과하였다. 재종숙 향숙香叔과 말을 탄 채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경四更, 오전 1~3시에 연빈관延賓館에 도착하니 눈은 미끄럽고 길은 캄캄하였으며, 말은 얼어서 넘어지고 사람은 굶주려서 축 늘어져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군성郡城에 도착하여 비로소 음악소리를 들었으며, 마중을 나온 아전이 등불을 밝히고 위의威儀를 베풀었다. 서문西門으로 들어가니 종사관인 친구 강석희

註

- 8 호남의 비도: 순병희의 복점군은 공주전투 패전후 전봉준과 함께 남하하여 태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임실에 은거중인 최시형과 함께 근거지인 북쪽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수만 명을 헤아렸다. ‘호남의 비도’는 부정확한 표현이다.

와 조희우曹喜宇가 중도에서 나를 맞이하여 함께 들어갔다. 본영本營에 도착하자 성주城主와 종제 정시묵 및 강치원형님이 내방하였다. 이들과 함께 걱정을 하며 적을 방어할 계책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100여 명의 의병들과 기치를 세웠던 의병장이 하루아침에 모두 흩어져서 성이 텅 비고 사람이 없으니 답답하고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었겠는가?

○ 본영에 도착하여 유격장의 급보를 보니, “그간에 호남의 동학무리와 영동의 용산龍山 뒷 골짜기에서 접전을 하여 비도 1놈을 사로잡고 조총 2자루를 회득하였습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려고 할 때에 사방을 돌아보니 적의 세력이 매우 크고 사방이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병奇兵을 이용하여 적을 묶어놓고 서서히 퇴각하여 울계栗溪에 주둔하고 있으니 병정들을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40명과 탄약 200근을 보내주었다. 그날 밤에 당장 관문을 발송하여 안동·주천·의성·문경·대구·용궁·함창 등의 고을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작성하여야 할 문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를 작성할 사람은 단지 영리 2명과 서기 몇 명뿐이었다. 문서를 발송할 때는 닭이 이미 울고 있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

12일 [十二日]

추움. 새벽에 일어나서 수령에게 전갈을 하였다. ○ 유격장의 11일 첩보를 보았는데 내용은 지난번의 첩보와 대동소이하였다. 그런데 가장 급박한 것은 온 성내의 인심이 새와 물고기가 놀란 것처럼 마치 끓는 솥과 같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효유하고 또 일을 잘하는 노련한 아전들을 뽑아서 4곳 성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 사방의 면에 전령을 보내어 동북지역의 촌정村丁들은 성으로 들어와서 성의 수비를 돕고 서남지역의 촌정들은 주요 도

로를 방어하도록 파발을 띄워서 지시하였다. ○ 향원들 가운데 고을에서 의병의 주둔지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 간간이 내방하였다. ○ 아침을 먹은 뒤에 군사와 백성들 1,000여 명을 소집하여 남사정에 나가서 2늪을 효수하고 4늪을 총살하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또 적을 방어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 연이어 유격대의 첩보를 보니, 11일에 접전한 이후로 적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이미 산안^{山岸}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는데 그 숫자가 매일 1,000명을 헤아렸다. 비록 삼부^{三府}가 직접 다니면서 강력히 금지하였으나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9월의 변고 때 혼이 났기 때문이다. 성 안팎이 어수선하여 마치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 즉시 정부와 순무영에 보고하였으며, 본주^{本州}의 아전을 각 고을로 파견하여 병사를 구한다고 하였다. 구원병이 온다고 하고는 오지 않은 것은 적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언비어가 날마다 생겨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수선했이 끊이지 않았다. 새벽닭이 운 뒤에야 조금 눈을 붙였다.

13일 [十三日]

새벽에 일어났다. 연이어 화서^{化西} 약정의 첩보를 보니 동적^{東賊}이 청산으로 가서 청주의 군대⁹와 용산에서 접전을 하였는데 청주의 군대가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여 청산 대동^{大洞}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급히 안동·주천·의성에 관문을 보내어 군대를 데리고 출정해 줄 것을 재촉하였으며 또 군대를 보내어서 구원해달라고 남영^{南營}에도 재촉을 하였다. 연이어 상주 본토의 춘

註

9 청주의 군대: 청주에는 충청병영이 있었고 친군영(親軍營)의 하나인 진남영(鎭南營)이 있었다. 이들 군사는 공주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주변 농민군 토벌에 동원되었다.

병村兵들을 보내어 화서와 모서牟西의 여러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고, 내서內西의 병사들로 읍원栗院을 지키도록 하고, 북장北長과 외서外西의 병사들로 삼령三嶺을 지키도록 하고, 남면南面의 병사들로 수내蔚內를 지키도록 하고 북면北面의 병사들로 성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시장사람들을 내몰아서 전투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우리 군대의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오후에 병사와 백성들을 태평루太平樓에 대대적으로 소집하여 군대의 위용을 검열하였다. 이방吏房 이하 모두 무기를 들고 웅립하였으며 창수槍手와 총수銃手들이 꽤 불만하였다.

○ 박종사朴從事 형님과 장고성령張固城令, 수령명칭이 멀리서 와서 본영의 막사에 거처하며 함께 대책을 의논하였다. ○ 달성達城에서 돌아온 뒤에 장계를 작성하여 그간의 경과 및 유격장을 편의便宜대로 차출하고 종사관을 자벽自辟¹⁰하여 보좌하도록 한 사실 등을 낱낱이 기록하여 친구 강심형을 시켜 서울로 보냈는데, 이 장계에 대한 정부의 회제가 오늘같이 어수선한 때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비적의 괴수를 박멸하고 잔당들을 귀화시켜 한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의 마음이 고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종사관과 유격장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는, 소모시는 원래 장계로 보고하는 규례가 없으며, 또 관원을 임명하라는 조정의 명령도 없었는데 어떻게 편의대로 차출하였다는니 자벽하였다는니 하는 내용을 갑자기 등철登徹하는가? 매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원래의 장계를 되돌려 보낸다. 의로운 마음을 내어서 협조한 신사紳士들에 대해서는 그 공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註

10 자벽(自辟): 조선 후기 일부 특정 관직의 임용을 해당 관아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던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문신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신의 인사는 병조에서 담당하였으나, 소수의 관직은 해당 관서에서 단수로 추천하여 임용토록 하였다.

알기 바란다. 추운 계절에 많은 지역의 시골용사들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애처롭다. 먼 지역에서 모집해온 용사들은 차차로 돌려보내고 본 지역의 민병民兵만으로써 방어하도록 하라. 지역을 나누어서 순행巡行하는 일은 본도의 감영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일을 더 키워서 도리어 민폐를 끼치도록 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순무영巡撫營의 회제에, “군량미가 없으면 병사들을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부호들에게 곡식을 빌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담박澹泊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가 없고 영정寧靜하지 않으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 힘써야 할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강심형님의 편지를 보고 비로소 현재 소모사와 소모관으로 순무영에서 파견된 자들이 거의 수십 명에 이르며 또 순무영에서 임명한 별군관別軍官과 종사관도 수십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을 토벌할 때에 폐단을 짓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서 도리어 황송한 처분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주유격장 김석중이 청산으로 갔을 때 읍리邑吏 중에 거괴인자 1명을 체포하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백錦伯에게 모함을 당하여 정부에 전보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영영嶺營, 경상감영으로부터도 금백이 한 것처럼 헐뜯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호서와 영남에서 번갈아가며 헐뜯으며 곳곳에서 비방의 말이 떠다니니 순무사도 불안하여 이러한 회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만약 정부의 회제의 내용대로라면 그 공적을 칭찬하고 그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의 새로운 규례에는 도백道伯이나 초토사가 아니라면 관원을 자백하거나 편의로 차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소모사가 제멋대로 계문啓聞한 것을 법도에 어긋난 일이라고 한 것이다. 유격장의 일에 관해서는 그를 조정에 헐뜯는 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어서 결국은 상하

의 거리가 현격하게 벌어져서 참된 마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분하고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응교應敎 사촌이 승선 정대경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대략적인 내용에, “정부와 순무영의 회계를 받아보고 매우 의아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두렵고 불안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종사관과 유격장을 차출하는 일을 장계로 보고하는 규례는 원래부터 없다고 운운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임진¹⁵⁹²년과 병자¹⁶³⁶년 이래 우리 영남의 선배들 가운데 이 소모사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종사관을 맡을 만한 사람들 몇 명을 자백하고 계문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은 뒤에 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글들이 이들의 유집遺集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시골구석에서 과문한 탓으로 옛 규례만 알고 최근의 규례는 알지 못하여 이처럼 법도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살펴보면 용서할 만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유격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사의 책무는 오로지 의병을 불러 모으는 것이며 의병의 파임은 이른바 조방장과 좌우부장左右部將 및 유격장 등의 명색이 있으며, 이 또한 선배들의 기존의 규례임은 임진년과 병자년 이래 영남의 여러 창의록倡義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장계에 ‘편의대로 임명하였다’는 등의 말을 감히 특별히 적었는데, 이는 얼핏 보면 혹 괴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적을 논하자면 그들을 임명한 사실을 덮어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애당초 마음대로 관직을 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소모사인 제가 비록 사리에 밝지 못하고 예법에 어둡기는 할지언정 어찌 감히 조정의 명령도 없고 옛 규례에도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총재總裁 어른께서 이 점을 헤아리시지 못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청곤淸糶, 충청도병마절도사이 유격대가 와서 청산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전신電信으로 정부에 보고하자, 정부에서는 영영嶺營에 전신으로 신칙하였으며, 다시 영영에서는 소모영에 문서로 지시를 내려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유격장 김석중은 백면서생으로 적의 창끝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공로를 세운 점은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적도들을 체포하고,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추호도 양민들이나 귀화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니, 그에게 감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한 지역이 그 덕택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을 침범한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도를 체포할 때에 오직 적도들만을 따라가다 보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호서 4개 고을의 경내로 깊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우두머리 4~5놈을 잡자 호서와 영남 2개 지역의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4개 고을의 비당匪黨들이 서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것이 청곤의 귀에 들어가고 서울과 지방 각지에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더 이상 소모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어찌 안타까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호서지역에 있을 때는 비류들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주로 돌아오자마자 호남으로 흩어져 도망갔던 적도들이 다시 무주에서부터 차례로 기포起包하였습니다. 이들이 영동을 거쳐 청산에 이르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영동 수령은 이 사람의 계책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편지를 써서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미 군대를 인솔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향후의 승패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청곤이 보고한 바와 같다면 영동 수령이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굴러가는 구슬은 움푹 패인 곳에서 멈춘다’고 하였습니다. 정승에게 이런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비록 사리에 어두우나 결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때문에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함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순무영의 회제에서는 또 ‘군량미가 없으면 병사들을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사가 없으면 어떻게 적도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적도들이 물러나지 않고 쳐들어오면 관부와 민간에서 축적해둔 것들이 적도들을 위해 축적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도 이 도리를 알고 있는데 대원용^{大元戎}, 도순무사의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하니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는 진정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도 되며 이렇게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국가의 존망이 눈앞에 닥친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가 아무런 까닭 없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며 집안과 국가의 화를 재촉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구미에 맞는 평온^{平溫}한 약제로 관격^{關格}이 되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적의 세력을 도와서 충의^{忠義}의 마음을 꺾으려는 것이니 더욱 통탄할 노릇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종형^{宗兄}께서는 평소에 믿음이 두터우며 나라를 위하여 모든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제를 받은 이후로는 불안해하면서 빨리 소장^{疏章}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강력한 적도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절목^{節目}을 작성할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 번 생각한 끝에 형에게 부탁을 드리니 이곳의 사정을 깊이 살피시어 정승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유격대가 와서 청산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한 것은 변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당시 청산 수령 조만희(趙萬熙)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격대가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의분을 떨치고 있음을 크게 칭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충후(忠厚)하고 청렴하신 종형께 보답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비록 사리를 모른다고는 하나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과연 순무영의 말대로 하여 군량이 없으면 병사들을 모집하지 않는다면 소모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적도들을 없애지 않으면 나라는 하루도 안정되지 않고 백성들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형께서 정사를 보시던 초기에 우선 유궁(儒宮)과 계가(契家)¹¹에서부터 양호(良戶)와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의껏 의로운 마음을 발동하여 재물을 출연하여 군수에 보태어서 힘들이지 않고도 군량이 풍부해졌습니다. 동학의 난 이후에 상주에는 집강소가 생겨났으니 이는 성 안팎의 인민과 이서(吏胥)들이 조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군대를 조직하였으니 군사들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모였습니다.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부호들에게 고을을 곡식을 빌리는 일은 애당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정형(鄭兄)에게 보내는 청산 수령의 편지를 동봉하니 이것을 가지고 이곳의 사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밝혀주시면 서울의 들뜬 논의가 자연히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註

11 유궁(儒宮)과 계가(契家): 유궁은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모신 향교, 계가는 양반 선비들의 친목계 등을 말한다.

14일 [十四日]

맑음. 유격장의 첩보를 보니, “적도들은 청산에 머물고 있으며, 청주의 군대는 퇴각하여 원암(元巖)에 주둔하고 있고, 일본군은 황간에 있으면서 김산 소모영의 군대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위세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여러 고을의 군대는 아직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남영(南營), 진주병영의 군대는 오래 전에 출발하였다고 하나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 답답하였다. 시돈 박형(朴兄)이 돌아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순영의 공문을 보니, 유격대가 경계를 넘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금백이 정부에 전신으로 보고를 하자, 정부에서 영영(嶺營)에 전보로 신칙하였으며, 영영에서는 본영(本營), 상주소모영에 공문을 발송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사람이 포의로 공을 세운 사실은 이제까지의 문첩(文牒)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공을 덮어두고 그 죄를 나무라는구나. 이는 맹영재와 선봉장 이규태가 앞장서서 적을 토벌하여 임금께서 그 공적을 칭찬하셨는데도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 그를 소환하여 논죄하라는 의논이 생겨나기에 이른 것과 같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 남촌(南村)의 거괴 4놈이 9월의 변고 이후에 호서로 도망가서 최적(崔賊) 및 이괴(李魁)와 함께 몰래 무리를 모아 무주로 가서 오늘의 화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몰래 남촌으로 들어와서 기포하여 내용하고자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래서 즉시 정예 포수를 출동시켜 이들을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여 승복을 받아내었다. 그래서 당일 오시에 문루(門樓)에서 개좌(開座)를 하여 이들을 모두 효수하자 온 경내가 썰렁하고 부중(府中)이 숙연해졌다. ○ 8월 이후의 조지(朝紙)를 보니, “동학의 난이 크게 발생하여 난리가 생기지 않은 곳이 없다. 해주(海州)와 관동(關東)도 모두 소란스러우나 한편으로는 토벌하면서 한편

으로는 위무하고 있다. 양호지역은 죽은 자가 몇 만 명이나 되는지 모르고 전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재물이 어찌 부족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찌 궁핍하지 않으며, 나라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나랏일을 걱정하며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었다. 비류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본디 천벌이다. 그러나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 고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전쟁터에 나간 자들은 전투를 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으니 더욱 걱정이 되고 답답하였다.

15일 [十五日]

구름이 끼고 흐림. 새벽에 유격장의 편지를 보니, “항간에서 온 일본군이 16명이며, 또 추후에 65명이 더 왔습니다. 김산 소모영에서도 유격장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며, 청주의 군대도 멀리서 주둔하며 서로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적을 토벌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 의성의 장교將校가 와서 알현하고 말하기를 장차 300명의 포수를 데리고 당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들으니 안동 좌익장左翼將 권수중權秀琮이 300명의 포수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 하였다. 용궁과 함창에서도 군대가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을 기다렸으나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천에는 새로 편성한 수천여 명의 포군砲軍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줄곧 구원하러 와달라는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래서 거듭 관문으로 신척하였다. ○ 영금靈金을 한양으로 보내어 정부와 순무영에 첩보를 전하도록 하였다. 첩보의 내용 중에 유격장의 일에 대해서는 단지 옛 규례만 알고 최근의 규례는 알지 못한다고만 하였다. ○ 저녁에 용궁 포수 20명과 함창 포수 19명이 도착하였다.

16일 [十六日]

닭이 울 때 군관 차재형(車載亨)이 용궁과 함창의 포수들을 데리고 와서 유격장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그때는 새벽이었는데 유격장의 편지를 보니, “일본군 16명이 다시 울계에 모여 있는데 장차 성현(星峴)으로 옮겨서 주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들은 지금 청산읍에 머물고 있는데 서쪽 옥천(沃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의 군대와 이들을 협공하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 밀양 관아에서 온 편지를 보러 동헌으로 들어가서 수령들의 고과 기록을 보니 밀양은 중중(中中)이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의 처지가 매우 딱하게 되었다.

○ 오시에 남영의 군대가 비로소 주(州)에 도착하였다. 날씨가 추움을 빙자하여 술로 몸을 녹인 뒤에 내일 군진(軍陣)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 진장(鎭將)의 첩보를 보니 개령의 창수(槍手) 100명이 상주진(尙州鎭) 관하로 징발되어 멀리서 와서 대령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잠시 성 밖에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병졸들이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군량만 축낼 뿐이었다. ○ 저녁에 동헌에 들어가서 진장(鎭將)과 군량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다. 공전(公錢)과 출연한 곡식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 화서의 첩보를 보니, “적도들이 지금 보은의 관기(館基)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군관 차재형이 올린 고목(告目)을 보니, “유격대는 보은의 마로시(馬老市)로 이동하여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과 우리 군사를 합한 숫자가 231명이요, 용궁과 함창의 포수가 도합 270명입니다. 남영의 군대와 김산의 군대도 와서 유격대와 만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저녁에 성을 순시하며 군사들을 위무하였다. 닭이 울고 난 뒤에 잠시 눈을 붙였다.

17일 [十七日]

맑음. 추위가 사람을 괴롭혔다. 새벽에 남영의 군사 50명을 징발하여 화서광주원廣酒院으로 보냈다. 개령의 창수 100명을 유격대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적을 토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도沿道에서 폐단만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곧바로 들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루 종일 유격장의 편지를 보지 못하여 매우 답답하였다.

○ 안동의 군사 300여 명이 왔는데 총砲을 가진 자가 100명이었고 창을 가진 자가 200명이었다. 이들을 통솔하여 온 자는 참봉參奉 권수종과 서기書記 권재중權在重이었다. 음식 한 상을 보내어 그들을 대접하였으며 또 소를 잡아 군사들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궁핍한 시기에 많은 군사들을 먹일 양식과 멀리 출정하는 군대의 경비 등 소용되는 물자가 매우 많았으나 재물을 담당한 여러 아전들이 여기저기에서 주선하여 부족하지 않게 충당할 수 있었다.

18일 [十八日]

맑고 추움. 안동의 군대가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서 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또 적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하루를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오시에 유격장이 15일에 보낸 편지를 보았다. 이것은 군관 차재형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편지에는, “지금 일본군과 함께 청산에 주둔하고 있는데 내일 보은의 원암으로 가서 적을 토벌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 선무사 이중하가 내무협판內務協辦으로 소환되어 한양으로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본영本營을 방문하였다. 이때 그에게 소모의 전말에 대하여 대충 설명을 하였다. 그는 서울로 올라간 뒤에 응교사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김유격장의 북곡¹²의 승리는 그 공적이 과오를 덮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아, 이선무시는 김유격장의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오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중간에 호서와 영남의 유언비어에 미혹되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 주천의 병사 500여 명이 예리한 무기를 들고 총을 쏘면서 북문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본 고을에서 일을 벌이려는 듯이 그 기세가 매우 난폭하고 행실이 법도에 어긋났다. 북쪽사람들의 용맹으로써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공을 믿고 무력을 자랑하고자 하였던 듯하다. 세상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군사제도가 규율이 없어졌음을 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단호하게 군율로 다스려야 하였으나 적이 가까이 있는데다 또 들으니 호서의 단양^{丹陽}과 영동 등지의 사태가 급박하다고 하여 잠시 물러나서 본읍^{本邑}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 밤에 하현^{下縣}의 종제 정홍묵의 편지를 보고, 적도들이 보은부^{報恩府}에 머물러 있고 유격대는 원암시^{元巖市}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유시^{酉時}에 보낸 편지에, 유격대가 어제 종곡^{鍾谷}으로 들어갔으며 포성^{砲聲}이 크게 들렸다는 내용을 보고는, 유격대가 적도들과 접전을 벌이면서 그들을 추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19일 [十九日]

맑음. 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새벽에 운량색리^{運糧色吏} 박시범^{朴時範}의 고목을 보니, “유격병과 청주의 군대가 17일에 적도들과 보은의 풍취점^{風吹店}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밤새도록 포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산의 유격장이 선산의 군사 150명 · 개령의 군사 150명 · 인동의 군사 100명 · 성주의 군사 20명

註

12 북곡(北谷): 보은 종곡(鍾谷)의 잘못 표기. 종곡을 마을사람들이 보통 ‘북실’이라 부른다.

및 남영의 병사 149명을 데리고 어제 올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주 소모영의 군량을 이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놀암시 訥巖市로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 식사 후에 안동과 주천의 군대를 돌려보내고 돌아갈 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안동 포수 40명과 본읍의 포수 40명과 함께 화서로 출발하였다.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전선으로 출발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은 조카 정재덕과 연사 連史 숙부였다. 강진규는 영관으로 따라갔고, 박규홍 朴圭洪은 전병 典兵으로 따라갔고, 강덕상 姜德相은 서기로 따라갔고, 이용필 李容弼은 사화 司貨로 따라갔고, 김수영 金守永은 교련으로 따라갔다. 영리 권윤장은 별선 別選으로 따라갔고, 군관 차재형과 통인 通引 차재욱 車載旭 · 박갑금 朴甲金도 모두 따라갔다.

신촌 新村에 도착하여 잠시 쉬면서 마을의 장정들을 효유하였다. 읍원에 도착하여 또 신촌에서처럼 효유하였다. 저녁에 화서시 化西市에 도착하여 회군하는 유격장 김석중과 만났다.

그가 보고하기를, “16일에 청산에서 군대를 출발하여 보은 · 수피 水陂 · 원암 · 신전리 薪田里에 도착하니, 적도 수만 명이 보은읍으로 가는 길에 공해를 부수고 민가 2채를 불사르고 한 부府를 분탕질한 뒤에 풍취점에 머무르고 있는 적도들과 합세하여 종곡촌 鍾谷村으로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밤 삼경 三更에 귀인교 貴人橋에서 식사를 하고 의병 포수 200명 · 일본군 43명 · 저의 동생 김직중 · 성굴 · 성걸 · 김제홍 · 황교택 黃敎澤 등과 약속을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종곡의 동구 洞口에 이르자 적도 4명이 불을 피워놓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칼로 3명을 찌르고 이어서 한 놈을 묶은 뒤에 일일이 취초 取招하자, 적도들이 청산에서 이 동洞으로 와서 머무르고 있으며 지금 금소촌 金召村의 촌가 村家에 있는 자들은 바로 동학의 괴수 4~5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그 집을 포위하고 일제히 총을 쏘았더니 총에 맞아 즉사한 자가 3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국호와 정대춘이 그 안에서 죽었다고도 하였으나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문득 사방을 돌아보니 적도들이 종곡 대촌大村에서 총을 난사하여 총알이 빗발치듯 하였고 그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좌대左隊와 우대右隊로 나누었으며, 일본군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우리 군사들은 좌우를 맡아 협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17일 해시亥時, 오후 9~11시였습니다. 해시부터 18일 날이 밝을 때까지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전진하였으나 승패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보니, 흰옷을 입은 적도들이 마치 화살촉과 삼대처럼 뿔뿔하게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적도는 많고 우리는 적으며, 적도는 높은 지역에 있고 우리는 낮은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사를 하나하나 둘러보니 모두 승리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혹은 겁이 나서 도망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지르면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성굴, 성결과 김제홍 등을 다그쳐서 칼을 뽑아들고 군사들의 뒤에 서서 물러나지 말라고 엄히 신칙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원숭이가 기어오르고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한 걸음에 총 한방씩 일제히 총을 쏘면서 전진하여 산허리에 다다르니 적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더욱 총을 빗발치듯 쏘아대자 적도들 가운데 총탄에 맞아서 꺼꾸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한 자들이 거의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적의 기세가 조금 꺾여서 퇴각하여 긴 언덕에 의지하였는데, 그 언덕은 산 정상에서 100보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정상을 탈환하자 일본군들도 봉우리의 좌측에서 올라왔으며, 늘어서서 총을 쏘아대자 마침내 적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총에 맞아 즉사한 자들이 전후하여 모두 395명이었으며 그밖에 뒷 골짜기의 시내와 숲 속에서 죽은

자들이 골짜기와 계곡을 가득 메웠는데, 이들은 서로 뒤영켜 있어서 그 숫자가 몇 백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도들이 물러간 뒤에 남은 이미 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전부 죽이지 못한 이유는 총알이 떨어지고 배고픔이 심하였으며 뒤에서 지원하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을 정돈하여 마을로 들어올 때에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주의 관포官砲와 옥천의 의병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적을 추격하여 남악南岳으로 가는 길에서 27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군대가 공을 세운 것을 부끄럽게 여겨 우리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 급히 나머지 적들을 추격하여 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간 뒤에 적도들의 군수물자糧重를 획득하였는데, 우마牛馬 100여 필과 양총洋銃·약환藥丸 및 상당수의 집물什物 등을 이루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본인들이 가져가고 우리 군대가 얻은 것은 단지 우마 112필·환도還刀 15자루·철창鐵 42개·기치 10면·나팔 1쌍 뿐이었습니다. 보은수령 이규백李圭白이 적을 격파하였다는 첩보를 듣고 군문까지 걸어와서 매우 감사해 하였으며 유격대를 고을로 들어오라고 극구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오늘 화서로 돌아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군대가 이르는 곳에서 군량은 어떻게 조달하였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을계를 떠난 뒤로는 상주에서 출연한 곡식을 조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마을에서 모두들 의로운 마음으로 출연하여 도와주었으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적도에게 획득한 군수물자 가운데서 큰 소 2마리를 동중洞中에 내어 놓아 난리가 끝난 뒤에 경작할 때 사용하라고 하자 길가던 사람들이 모두들 숙연해 졌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산·남영·선산·인동·개령의 군사들은 우물쭈물 관망하다가 겨우 보

은에 도착하였으나 적도들은 이미 격파된 뒤였다. 화서로 가서 주둔한 대구의 군사 50명은 시장의 가게에 드러누워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급하게 소집하여도 버티면서 명령을 듣지 않고 도리어 말썽만 일으켰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화시化市에 있던 군사 400여 명과 종군색리從軍色吏에게는 의연곡식을 특별히 지급하였다.

20일 [二十日]

적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들렸다. 군대를 돌려 북정北亭에 이르자 성주城主가 육방六房과 삼현三絃을 데리고 와서 유격대를 보고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뒤에 출발하였다. 악기와 기치가 전후에서 호위하였으며 사이사이에 마을의 장정들이 창을 들고 북을 치며 춤을 추었으니 마치 태평시대와 같았다. 토성土城에 도착하자 진장鎭將이 일행을 인도하여 남문을 통해 들어갔다. 태평루太平樓에서 잔치를 베풀고 군사들에게 따뜻한 술을 내어주었으며 군사들은 모두 기뻐서 춤을 추었다. 남영의 초장이 비로소 50명을 데리고 뒤이어 성으로 들어오자 성주가 그를 누대 위로 불러서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구원하러 온 군사들이 시장에서 드러누워 나라의 위급함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상영上營, 남영의 본뜻이겠는가? 나는 이를 자세하게 남영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리를 파하였다. 인동토포사 조용현이 군대를 데리고 출발한 뒤에 선산에 이르러 본부本府에 노문路文을 보내왔다. 그래서 본부에서 편지를 보내어 출정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적을 물리친 뒤여서 더 이상 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1일 [二十一日]

맑고 화창함. 객사客舍에서 군사와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소집하여 잔치를

배풀었다. 안동·용궁·함창의 군대를 돌려보내었으며 각각 노문을 지급하였다. 대구의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그간에 적을 격파한 사실을 모두 적어서 순영에 문서로 보고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기생들을 불러들여 즐겼다. 김유격장의 병정들도 모두 복채를 잡고 복을 치며 춤을 추었는데 그 기상이 불만하였다.

22일 [二十二日]

맑음. 남사정에 가서 1명을 효수하고 9명을 총살하였다. 이어서 들으니 적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혹은 청천靑泉으로 달아나고 혹은 괴산槐山으로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탐문하고 그간에 적을 추격하고 접전하였던 때의 일들을 정부와 순무영에 보고하였다. 또 유격대의 일과 군대를 퇴각한 일에 대하여 별도로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본부本府의 관노官奴를 시켜 보냈다.

23일 [二十三日]

맑고 추움. 남정南亭에 나가 사격훈련을 하였다. 순영이 본부本府에 답한 관문을 보니, “유격대가 세운 공적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이에 의거하여 정부에 답전答電을 보낼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실과 어긋난다면 후일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4일 [二十四日]

바람이 불고 추움. 사정에 나가서 사격훈련을 하고 동학의 괴수 3놈을 죽였다. ○ 순영에서 염리廉吏를 보내어 5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것은 군량미의 확보·군사의 모집·유격遊擊·출전出戰 및 의병에 관한 것

이었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 조금의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대답하였다.

25일 [二十五日]

매우 추움. 평부소平賦所에서 별포別砲의 정월 급료와 관포官砲 및 여러 집사들의 급료를 이전의 수량과 같이 지급하였다. ○ 김산소모영에 비류 1명이 있는데 그가 무주의 적도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소문은 믿기가 어려워서 김산소모영에 편지를 써서 상황을 알아보았다.

26일 [二十六日]

맑고 추움. 중부仲父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부치신 것이었다. 늘그막에 관직을 사임하시고 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오셨으니 매우 안타까웠다. ○ 적을 물리친 뒤에 처음으로 순영의 공문을 보니, 정부와 순무영에서 방백에게 신칙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을을 순행하지 말고, 폐단을 일으키지 말고, 종사관과 유격장에 관하여 공문을 올리지 말고, 군사를 모집하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등의 일이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칠 것을 자나 깨나 근심하고 있지만 재주는 얇고 사안은 중대하여 걸핏하면 방해만 되니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 본영本營에서 200금을 내어서 서쪽으로 전투를 하러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27일 [二十七日]

맑고 화창함. 김산소모사의 답장을 보니, “영동과 옥천에서 기포한 놈을 잡았는데 바로 보은의 거괴 황하일黃河一의 매부였습니다”라고만 하였다. ○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의 후손인 참관 송도순宋道淳의 편지를 보니, “그의 동생인

진사進士 형이 화북化北의 광정리光亭里로 우거하였는데 동학의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군사들에게 학대를 당하여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전령을 보내어서 별도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였다. ○ 박사돈의 편지를 보니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탐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을 물리친 소식을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 중부께서 내일 입산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앉아서 행차를 기다릴 수 없어서 아침을 먹은 뒤에 말을 타고 가서 뵈었다.

28일 [二十八日]

새벽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녁에는 개입. 본부本府에서 이졸吏卒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수령과 함께 수레를 타고 북대北臺로 갔다. 먼저 별포別砲의 기예를 시험하고 이어서 이졸들을 모집하였더니 그 들쭉날쭉한 보폭과 체계가 잡히지 않은 대오가 별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 오후에 순영의 공문을 보니 우선 유격대의 통쾌한 승리를 칭찬하고 이어서 군량 모집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 이날 밤에 동헌에서 술한 통과 안주를 보내왔다. 마침 강성제와 강치원형님 및 종제 성중聖中이 동석하였다. 이들과 실컷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닭이 울 때 잠이 들었다. ○ 영리 2명을 안동으로 돌려보냈다.

29일 [二十九日]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꾸렸다. 문 밖에는 눈이 3자나 내렸다. 하인들과 병정들이 모두 눈이 많이 쌓여 길이 험하다고 백방으로 만류하였다. 그러나 난리가 조용해진 이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정리情理였다. 그래서 옷을 털고 말을 탔다. 유격장과 함께 신촌점新村店에 도착하니 마침 친구 성굴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악수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

니 해는 어느덧 정오를 지나고 있었다. 유격장을 포정^{浦亭}의 본가로 돌려보냈다. 구리현^{九里峴}에 도착하니 길 왼편에 초막^{草幕}이 하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촌민들이 적을 지키는 곳이었다. 신시에 집에 도착하였다. 난리소식을 듣고 눈을 무릅쓰고 나가서 적을 잡아 회군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위로는 임금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래로는 노모의 마음을 위로하였으니 금년 한 해를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었다. 밥 짓기를 재촉하여 데리고 온 병정들을 먹이고 또 노자를 주어 떠나보냈다. ○ 13일에 서울로 보낸 하인이 오늘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강서기^{姜書記}의 편지를 보고 서울소식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첩보의 회제는 아직 얻어 보지 못하였다.

30일 [三十一日]

맑음. 오늘은 선달그믐이다. 새벽에 선조의 사당을 배알하였다. 진시에 수령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이 편지를 통하여 군대를 파한 뒤에 관부^{官府}와 양반가의 하인들이 민촌^{民村}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엄히 주의를 주었음을 알았다. 여러 부로^{父老}들을 배알하였다. 노친을 모시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떡을 굽고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전쟁으로 쌓였던 피로가 오늘 한꺼번에 풀렸다. 잠을 청하려는데 어린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율을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각해보면 이 몸이 어린아이였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백발이 성성하니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겠다.

1895년 1월 1일 [乙未正月朔日]

아침에 맑았다가 오후에는 흐림. 새벽에 일어나서 선조의 사당에 공경히 배알하고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렸다. 종족들이 모두 모여 집안이 태평하고 나라가 태평함을 다투어 칭송하였다. 이어서 차례를 지냈다. 진시에 서울로

갔던 하인이 돌아와서 양춘養春 형님의 서찰을 전해 받고 판서判書 김종한金宗漢의 편지도 보았다. 이를 통하여 근래의 서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또 수령의 편지도 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순사巡使, 감사가 상주목에 대단히 화가 나서 수리首吏를 잡아들이라고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전에 순영의 군사들이 이 고을에 왔을 때, 길으로는 구원하러 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폐단을 일으켰으며, 종곡에서의 위기상황을 먼 산 쳐다보듯이 하며 시장에서 한가롭게 지냈다. 그래서 수령이 태평루에서 이들을 꾸짖었는데 이는 공분公憤을 표출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영棠營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였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저물 녘에 종숙모 의성 김씨金氏의 석전夕奠에 참석하였다.

○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여러 종친들과 옥성·판계·하현의 여러 동생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이번의 모임은 그 기쁨이 전보다 배나 되었다. 이날 밤에 큰 눈이 내려 도로가 막혔다. 오두막이 추워서 모두들 추위에 떨었다. 가난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딱하였다.

초 2일 [初二日]

맑음. 새벽에 응교사촌 집에 가서 조전朝奠¹³에 참석하였다. ○ 신시에 강성제 형님과 연사 숙부가 내방하였다.

초 3일 [初三日]

구름이 끼고 흐림. 본영에 머물고 있는 병정들이 폐단을 일으킬 것이 걱정되어 편지를 보내어 엄히 주의를 주었다.

註

13 조전(朝奠): 사람이 죽은 후 염습(殮襲)을 마치고 장사를 치를 때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神位에 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朝奠은 아침때 올리는 것을 말한다.

초 4일 [初四日]

아침에 눈이 오고 오후에 개입. 소모사로 임명한다는 명령을 받은 이후 수개월만에 비로소 한가한 시간을 얻었다.

초 5일 [初五日]

맑음. 서울로 간 심부름꾼이 차례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회제를 보니, 지난날에 유격장의 일은 명쾌하게 밝혀져서 문제 삼지 않았으며 도리어 격려하였다. 이어서 정무정¹⁴과 이이당¹⁵의 편지를 보고, 호남의 전봉준과 손화중^{孫華仲}이 이미 체포되고 호남과 호서가 평정되어 전쟁이 끝나 조정에서 군대를 철수하려는 논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유격장이 영관과 초장 및 본부^{本府}의 아전 16명과 사령 2명을 데리고 방문하였다. 신년하례차 온 것이다.

초 6일 [初六日]

맑음. 영리 권윤장이 와서 알현하였다.

초 7일 [初七日]

낮에는 개였다가 밤에는 눈이 옴. 새벽에 고조부 석파공^{石坡公} 휘^諱 진^辰의 사당에 다녀왔다.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였다.

註

14 정무정(鄭茂亭): 무정은 정만조(鄭萬朝)의 호. 정만조는 고관을 누린 정원용의 손자로 많은 벼슬을 누리고 뒤에 경학원 대제학으로 친일파 노릇을 했다.

15 이이당(李二堂): 미상. 을사오적인 이완용의 호는 일당(一堂)이었다.

초 8일 [初八日]

맑음. 이날은 증조모의 기일이다. 어지러운 세상이라서 슬픈 감정을 배나 억누르기 힘들었다.

초 9일 [初九日]

맑고 추움. 편지를 써서 당헌^{棠軒}, 감영에 보냈다. ○ 유격장의 편지를 보았다.

초 10일 [初十日]

맑은 뒤에 흐림. 영리 권석봉과 집사 김규섭^{金圭燮}이 방문하였다. 유격장에 게 답장을 보냈으며 아울러 수령에게도 편지를 부쳤다.

11일 [十一日]

아침에는 흐리고 낮에는 눈이 옴. 본부^{本府}의 아전 박시용^{朴時容}이 방문하였다.

12일 [十二日]

맑음. 모서 약정^{約正}의 품목^{稟目}을 보니, “비도들이 여전히 영동과 옥천 등지에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정탐을 하도록 하였더니, 경군과 일본군이 비도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용산시장^{龍山市}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400여 명이 된다”고 하였다.

13일 [十三日]

맑음. 하상^{河上}의 생질 유문식이 왔다.

14일 [十四日]

영금^{永金}을 서울로 보냈다. ○ 미시에 중부께서 왕림하셨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기력이 튼튼하셔서 걱정보다 기쁨이 더 컸다. 본동^{本洞}의 민정^{民丁} 80여 명을 모아 앞 숲에서 점고를 하였다. 모두들 창을 메고 돌을 들고 나온 것이 제법이었다.

15일 [十五日]

새벽에 눈이 오고 낮에 개임. 선조의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 조카 정재 덕을 읍원으로 보냈다. 사시에 성주^{城主}가 왕림하였다. 공형^{公兄}들도 와서 알현하였다. 고을의 사정이 어수선하여 왔다가 바로 돌아갔으니 서운하기가 말할 수 없었다. ○ 미시에 양춘^{養春} 형님의 편지를 보니, “서울에 갔던 일들은 이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 연숙^{蓮叔}이 내려왔다. 이번에 많은 문서들을 작성한 것은 이 연숙^{蓮叔}의 힘에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데 사흘이나 못 보다가 만나니 매우 위로가 되었다.

16일 [十六日]

비가 오고 눈도 내림. 순상이 답장을 보내어, 방어할 병사들은 있으나 군량이 없으니 매우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수령의 편지도 보았다.

17일 [十七日]

맑고 따뜻한. 문득 초봄의 따뜻한 날씨를 만나서 매우 화창한 기운이 감돌아 들에서는 얼음이 녹고 그늘진 낭떠러지에는 눈이 떨어지니, 이를 통하여

군자의 도가 왕성해지고 소인의 도가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사 숙부 및 조카 정재덕과 함께 본영本營으로 돌아갔다. 지나는 길에 초산草山에 들렀다. 영빈관迎賓館에 도착하니 유격장과 영관이 병정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시에 성에 들어가서 성주城主를 배알하고 진장鎭將을 만났다.

18일 [十八日]

맑음. 순영문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근래 비류들이 차츰 토벌되자 정부에서 각도의 소모사를 줄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개인적으로는 신발을 벗고 신선이 되어 올라가는 것과 같았으나 국가의 은혜에 만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하였음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두렵기 그지없었다.

19일 [十九日]

맑음. 본부本府의 이졸吏卒들로 부대를 편성한다고 하여 본영本營의 군사 200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사격훈련을 하고 날이 저문 뒤에 돌아왔다. ○ 상사上舍 종제의 편지를 보고, 종곡에서의 전투 이후에 경향京鄕 각지에서 사 람들이 지나치게 모함을 하여 엄찰사廉察使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떠나기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세상일이 태항산太行山처럼 험준하여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 승선사촌과 개령 이병익이 내방하여, 수령을 불러서 함께 한 바당 연회를 열었다.

20일 [二十日]

맑음. 소모영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기 위하여 대안과 하현의 종제를 불렀다.

21일 [二十一日]

비와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개입. ○ 지역의 사우들이 번갈아가며 내방하여 모두 기록할 수가 없었다.

22일 [二十二日]

눈이 내림. 사촌 정홍묵이 왔다. 그를 통하여 노문사^{勞問使} 박준성^{朴準成}이 서울에서 파송되어 호서를 지나 호남으로 향하면서 상주를 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전혀 소식이 없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일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장재색^{掌財色}에게 장부를 정리 하라고 하였다.

23일 [二十三日]

맑고 추움. 봉대^{鳳臺}에 가서 친척인 강오수 어른을 뵈었으며 지나는 길에 동곽의 강상사 어른을 방문하고 응교사촌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왔다. 장부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돌아갈 날은 급하여 사람을 답답하게 하였다.

24일 [二十四日]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본영^{本營} 아래에 있는 여러 이졸들을 객사로 불러 모았다. 진장과 유격장도 합석하였다. 자리가 과한 뒤에 이졸들을 불러 무기를 반납하고 귀농하여 각자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라고 하였다. 간혹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병졸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5~6개월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니 그 사정이 또한 측은하였다.

25일 [二十五日]

맑음. 가서 진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 서울로 갔던 심부름꾼이 돌아왔다. 그가 가지고 온 이이당과 정무정의 편지에는 최근 군대를 철수한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다. 또 서쪽에서 온 소식을 들으니, 박노문사(朴勞問使)가 금영(錦營)에서 곧장 완영(完營)으로 갔다고 하였다. ○ 각처의 인사들이 전별차 방문하여 온 집안에 가득하여 도리어 고민거리가 되었다. ○ 영리를 불러서 봉투를 봉할 때 사용하는 목인을 본부에 전해주어 본부에서 다시 정부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26일 [二十六日]

눈이 내림. 이날 마감한 장부를 1부는 정부로 보내고, 1부는 순상에게 보내고, 1부는 본부(本府)로 보내고, 1부는 소모사가 가지고, 1부는 영리에게 주어 후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일 [二十七日]

맑음. 먼저 영리와 마도(馬徒)들을 보내고 이어서 지역의 사우들과 이별하고 길을 떠났다. 연빈관에 도착하니 여러 이졸들이 술과 안주를 마련해 놓고 번갈아가며 술을 권하였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취기를 이길 수 없었으며, 이별의 정 때문에 차마 길을 갈라서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나루터의 정자에서 배회하며 지체하였다. 여러 이졸들은 모두 눈물을 머금고 일제히 절을 하였다. 마침내 말을 타고 떠나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갔다. 별포 수십 명이 중도까지 따라와서 소모사택의 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도리로써 꾸짖고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소모사로 임명한다는 명령을 받고 말을 타고 떠난 날부터 군대를 해산하

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두 100일이었다. 아, 우리나라는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여 온 나라가 두루 잘 다스려졌다. 그러나 오백년 동안 태평한 시대가 오래되어 문무관료들은 안일에 젖어있고 백성들을 무기를 알지 못하고 장수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요사스런 비도들은 호미와 가래를 잡은 무리들이나 부적을 갖고 주문을 외는 요괴들에 불과하였으나 이들이 고부 한 고을에서 창기하자 나라_{海東} 전역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다행히도 우리 성상께서 발끈 노하시어 장수에게 정벌을 명하시니, 1년 안에 온 나라가 평정되었다.

이 모두는 성상의 계획이 치밀하고 나라의 운명이 긴 덕택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미천한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무기를 내려놓고 직책을 그만두고 각건_{角巾}을 쓰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성주_{聖主}의 은혜가 아님이 없다. 형은 아우에게 가르쳐주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일러주어 대대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령을 받고 소모사로 재직하던 기간이 100일이나 되었으니 매일 매일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조카 정재덕과 재종숙 정동철씨와 함께 전말을 기록하니 이상과 같다.

금상_{今上} 32년 을미_{1895년} 2월 상현_{上弦}에 소모사 정의목이 산수헌_{山水軒}에서 쓰다.

(번역 : 장승현)